

일본 복음화에 불을 지피다

이다, 오사카, 나고야, 야마가타, 동경 등 지교회들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행복,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일본 연합수련회' 소식.

주님의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시는 사람,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긍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자신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면서 깊고 넓은 그릇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에 따라 믿음을 더해 주신다.

“만민은 응답과 축복이 넘쳐요”

목자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시력도 호전된 백지은 형제와 GCN 생방송으로 만민과 함께하는 말레이시아 루카이청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54호 2016년 9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만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다!

일본 선교에 박차를 가한 ‘2016 일본 연합수련회’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사진 1)를 강사로 진행된 '2016 일본 연합수련회'는 준비 과정부터 행사가 마쳐지기까지 화평함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며, 성령충만기도회, 예술제, 캠프파이어,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일정을 보냈다. 일본 전역의 12개 지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은 '만민'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임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제3도약기에 영적 장수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일본 연합수련회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다시 소재 가나에 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1994년 '이다 지역 연합대성회' 강사로 초청되어 놀라운 치료 역사를 나타냄으로 일본 기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역사적인 장소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1996년 '신유 지역 연합대성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다시 한 번 일본 기독교계를 들쭉이게 했다.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2000년에는 나고야에서 신유 대성회가 개최되어 이 목사의 기도로 10여 명의 농아가 한꺼번에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되는 등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최북단 홋카이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12개 지교회가 세워져 일본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일본 지교회가 마음을 모아 개최한 이번 연합수련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행사가 마쳐지기까지 화평함 가운데 기쁨이 넘쳤을 뿐 아니라 일본 전역은 물론 태국, 케냐, 인도 등 해외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초청하여 세계 교구화를 위해 하나 되는 은혜의 장이 되었다.

첫날인 지난 13일(토), 성령충만기도회에서는 각 교회 찬양팀으로 구성된 연합찬양팀의 특송 후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의 충만한 특송이 있었다.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는 설교에 앞서 각 교회

의 주의 종을 소개한 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사랑임을 증거하였다. 이후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사진 1, 2, 3).

둘째 날 14일(주일) 오전에는 주일예배가 있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감동의 설교를 통해 모두가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었고, 오후에는 각 지교회 예능팀들이 맡을 준비한 예술제가 올려졌다. 오사카, 나고야, 마이즈루, 동경타바타, 동경, 이다, 야마가타 7개 지교회에서 공연한 결과 1등은 이다만민교회, 2등은 동경만민교회, 특별상은 야마가타만민교회 팀에게 돌아갔다(사진 7).

같은 날 저녁에는 이희선 목사의 인도로 캠프파이어가 열려 온몸으로 울동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소망 가운데 뜨겁게 달려가리라 결단하였다(사진 4, 5, 6). 셋째 날인 15일(월)에는 '만민운동회'가 열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경기들을 통해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사진 8).

이번 수련회는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모두가 만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절절히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었으며, 일본 복음화와 세계 선교, 그리고 성결을 향한 열정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감동의 축제였다.

제16회 말씀퀴즈대회, 4,205명 예선 거쳐 84명 본선 진출

지난 8월 21일(주일) '제16회 말씀퀴즈대회' 예선이 남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있었다. 4,205명의 성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1차 예선에서 383명이 통과해 2차 예선에 오른 결과, 84명(본교회 60명, 지교회 24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9월 11일 주일 저녁예배 후 치러질 본선에서는 매주 주보 뒤에 수록된 '오늘의 말씀' 1년 치(작년 8월~올해 7월)인 성경 365구절 외에도 그 안에서 다양한 응용문제가 출제된다. 어느 해보다 열띤 경합이 예상되는 올해, 누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함으로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대로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읽고, 한 절을 암송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님의 마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42)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인생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길을 활짝 여셨지요.

2. 어찌하든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긍휼의 마음

영적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자도 싫다 하지 않고 어찌하든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죄로 물든 사람이나 혹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세리나 창기와 같이 멸시받는 이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러자 악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지요(막 2:17).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됐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조차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넘길 줄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도 가롯 유다는 결국 스승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채찍을 사정없이 휘두르는 로마 병정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희롱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악한 도구로 쓰이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히 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공의가 되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셨지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많은 사람에게 어찌하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저도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까만 생각하며, 영혼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훼방하는 악한 이들도 밟거나 싫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될 때 영혼을 살리거나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지혜를 얻으며 결국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3.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마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서도 혹 상대에게 부족한 게 없는지, 더 줄 것은 없는지 다시 살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을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누추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또한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에 온전히 율법을 준행하심으로 어떤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명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도 없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대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고후

8:9).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권능의 역사를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영혼들은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아 강건케 되었으며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도 온전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시거나 쉼 시간조차도 영혼들에게 내어주셨으며, 주린 영혼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떨시 천대를 당하는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존중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몸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생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생들의 질병이 나음을 입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앞일의 예표로서 겉옷과 속옷까지 내어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깨끗한 보혈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다 흘려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영생’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영혼들에게 다 내어주시면서도 참으로 행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인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기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악을 버리며 마음을 할렐하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 진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칠게 몰아친다 해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었지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만 하시는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 깊이까지 헤아려서 오직 순종만 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자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믿음 성장’을 위한 체크 포인트 3가지

주 안에서 진리를 알고 충성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 세 가지 분야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힘써 믿음의 성장을 이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기 바란다.

하나 ▶ 내 마음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

내 마음의 깊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적인 사랑과 덕, 온유함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선의 단계’에 비추어 보면 점검할 수 있다.

만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따진다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뒤쳐지는 것 같으면 서운해하고 힘이 빠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직 선의 1단계도 못 미친 것이며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

‘선의 1단계’는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마음에 감

정과 불편함은 있지만 표출하지 않고 눌러 참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선은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감정과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의 2단계’이다.

‘선의 3단계’에 이르면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닐 때도 다윗은 항상 사울의 생명을 살려 주고 겸손한 고백을 하니 악한 사울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선의 4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

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 거역하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드린 모세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영적인 사랑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 따라서 믿음이 큰 만큼 영적인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이다. 최소한 선의 2단계는 되어야 영혼들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둘 ▶ 내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되는가?

‘마음의 넓이’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깊이가 있다 해도 너무 좁은 그릇이라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결을 사모한다 하지만 마음 그릇이 너무 좁아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나름대로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고 개인적인 사명은 꾸준히 감당하지만,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이나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오랜 신앙

생활에도 자기를 발견하거나 변화되기 어렵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맞고 내 안에 갇혀지는 영혼들에게는 감동할 만큼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반면, 자신과 안 맞는 사람이다 싶으면 찬바람이 불 정도로 냉랭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다. 만일 함께하는 일꾼이 힘든 일은 하지 않고 드러나고 인정받는 일만 하려 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을 한다면 그릇이 넓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힘들어진

다. 회의나 모임을 할 때도 안 오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고, 심지어 다른 일꾼으로 바뀌길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 그릇이 넓은 사람은 이러한 일꾼이라도 그 장점을 먼저 떠올리며 어찌하든 더 섬길 방법을 찾으려 한다.

사람의 마음 그릇은 마음먹기에 따라 더 넓게도, 더 깊게도 조종할 수 있다. 영의 마음으로 선하게 마음을 품고 생각하면 점점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믿음의 분량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셋 ▶ 나는 얼마나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사람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진리를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다르고, 그만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요 13:32, 15:2).

가령, 어떤 일꾼은 아직 영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부흥도 이루고 더 귀한 사명도 맡는 반면, 또 다른 일꾼은 능력이 부족하니 영으로 들어간 뒤에

감당해야겠다며 사명을 내려놓았다고 하자. 이때 두 사람의 마음이 깊이나 넓이가 같아도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더 큰 믿음을 사모하게 된다. ‘어찌하든 영혼들을 충만하게 하고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까닭이다. 특별히 사명을 맡지 않았다면, 자신의 위치 속에서 어찌하든 더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행해 나가면 된다.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지켜 주고 모이기에 힘쓰며,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고 전도와 심방, 구제와 봉사는 물론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심 다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 빛과 소금이 되면서 깊고 넓은 그릇을 만들어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따라 믿음을 더해 주신다(엡 3:18~19).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9.4~ 9.10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공간과 차원 1~4
- 육체의 결여 1
- 헛되고 헛되니 1-3
- 순전 1-2
- 죽은자를 위한 세례 1-2
- 사랑장 2-6
- 요한계시록 강해 35-44
- 심계명 6-10
- 믿음을 책망하시니 21-24
- 선 1-4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5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

GCN TV설교

- 나의 믿음은 (이수진 목사)
- 막달라 마리아 3 (이미경 목사)
- 마음 (이희선 목사)
- 옴기 강해 7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30 (정구영 목사)
-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명호 목사)
-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자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2
- 내 마음의 찬양 38
- 창조와 과학 11
- English 2
- 모두 드려요 54
- 옛날 옛적에 7

해외성회 프로그램

- 페루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7
- 회상 (시준) 1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쁨 속에 시력도 좋아졌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게임에 빠져 중학생 때는 교회 친구들과 어울려 예배를 빠지고 축구하고 PC방에 다니곤 하였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잡담하고 휴대폰을 보니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고등학생이 된 후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않지만 평일에는 계속 PC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2015년 10월부터 세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목이 잘리는 꿈이었고, 두 달 후에는 용암에 덮여서 죽는 꿈이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던 저는 2016년 5월, 세 번째로 지옥행 판정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금요

철야예배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때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금요철야 예배 1부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꽤나 많았지만, 중학생 때부터 같이 어울리던 친구와 동생들이 하나둘 목자의 사랑을 느끼며 게임도 끊고 모여 기도하며 변화되어 가면서 저도 그 흐름에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변화된 친구들이 42일간 진행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상도 받고, 금요철야예배를 2부까지 아주 충만하게 드리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면서도 친구들과 함께하니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8월 2일, 시력을 측정해보니 왼쪽이 0.15, 오른쪽이 0.1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 때, ‘눈’에 관한 질병을 많이 치료해 주신다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봉사과 기도로 준비하였

습니다. 수련회 전날인 8월 7일 주일,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용돈을 하나씩 예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 100만 원을 심었더니 제 마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8일 수련회 첫째 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의 전제 기도를 받을 때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밝아진 느낌을 받았는데, 셋째 날에는 캠프파이어를 인도하시는 당회장님의 얼굴이 전보다 선명하게 보였고, 수련회가 마친 후에도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믿음으로 행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 영적인 자신감이 생겼고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학생들을 눈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지운 형제 (18세, 고2선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만민중앙교회, 너무 좋습니다”

루카이청 집사 (54세, 말레이시아)

저는 말레이시아 정 드보라 사장을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고, 2009년 5월에 아내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만민중앙교회에서 성경을 보듯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기대 이상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pecially 그 당시 큰 딸이 호르몬 조절 장애로 6개월 동안 생리가 없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 밤 전화 통화로 큰 딸이 치료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후 저의 두 딸도 만민의 성도가 되었고, 그해 8월에는 가족과 함께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해 수련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그 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저는 성결의 복음을 지인들에게 전하며 여러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는 저의 사업터 건물 3층에서 의자와 모니터, 스피커 등의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GCN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현재 20~30명이 매주일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며,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예배, 그리고 다니엘철야 기도회까지 GCN방송으로 드리며 만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민 하계수련회’에는 저를 포함해 21명이 참석하였는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후안홍 성도님이 말레이시아 이반족(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서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이 흘렀고, 목자님의 사랑과 영혼 향한 눈물이 비로소 깨우쳐지면 서 제 마음을 깊이 적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날씨가 폭염으로 무더웠는데, 수련회 장소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최적의 기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목자의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낄 수 있었지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너

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저희를 행복하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2016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일행과 함께.

▼ GCN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상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